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전문가들, 미 경제 전망 상향 조정... 높은 금리도 지속

[물류]

- WSJ: 태평양 컨테이너 해상 운임 상승....상승세 짝을 듯
- WSJ: 왜 미국 항만은 자동화가 힘들까?

[에너지]

- Bloomberg: 중국의 태양광 제조업체들 새로운 관세에 직면

[중국 경제]

- Bloomberg: Nomura, 중국 성장률 전망치 4.6%로 하향
- WSJ: 투자자들, 중국판 '리만 사태' 우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비슷한 문제 봉착한 월마트와 타겟에 다른 결과
- WSJ: 시카고 레스토랑 임금 둘러싼 분쟁 커진다
- CNN Business: Trader Joe's "셀프 계산대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 WSJ: Zara, 매장 관리자에 통제권 준다
- Bloomberg: Detroit 자동차업체들, 배터리 노동자 임금 인상 반대
- WSJ: 반도체 시장 M&A 힘든 이유는?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Economists Lift US Growth Forecasts, See Fed Higher for Longer

전문가들, 미 경제 전망 상향 조정... 높은 금리도 지속

-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에 미 경제가 더 견조해지며 실업률은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연준이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대감에 힘들 실어주고 있다.
- 블룸버그 설문에 따르면 미 GDP는 3분기에 연율로 1.8% 상승으로 예상 되어 7월의 예상치 0.5%의 4배 가까이 오른다는 것이다.
- 이들 전문가들은 또한 올해 지난 3개월간 경제는 위축 보다는 다소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강한 미 경제를 예측한 것은 소비 지출과 단단한 노동 시장이 강한 모멘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물류]

WSJ: U.S. Importers Are Absorbing Higher Shipping Costs This Summer 컨테이너 해상 운임 상승....상승세 짊어질 듯

- 아시아에서 미국으로의 해상 운송 비용이 빠르게 급등하고 있지만 미국 수입업체들은 사상 최고치에서 비용이 급감한 것으로 경험한 후에 현재는 이같은 높은 비용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운송 관련 회사인 Xeneta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 서부 해안까지의 해상 컨테이너 현물 평균 요금은 8월 15일까지 6주 동안에 61% 상승은 2천75불을 보였다.
- 지난해 2월 박스당 1만달러 가격이 6월 말 후 1천3백달러로 급감한 후 대형 해운사들의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다.
- 수입업체와 일부 해운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의 현물 운임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컨테이너 수입량을 변동이 없는 대신에 수요 정점일 때 주문한 해운사들의 신규 컨테이너선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WSJ 기사

WSJ: Why Can't U.S. Ports Get Automated? 왜 미국 항만은 자동화가 힘들까?

- 팬데믹 당시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에 자동화된 크레인과 자율 주행 컨테이너 운반선이 가동됐다.
- 그러나 남부 캘리포니아나 미 전역의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이같은 자동화 시설이 거의 없다.
- 반면에 상하이의 Yangshan 항만이나 네덜란드의 Rotterdam항만의 고도로 자동화된 케이터웨이가 가동된다. 미국 항만은 효율성과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공간 제약, 막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작은 경제성, 특히 조직적인 관련 노조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WSJ 기사

[에너지]

Bloomberg: Chinese Solar Makers Face New Tariffs After US Says They're Dodging Duties 중국의 태양광 제조업체들 새로운 관세에 직면

- 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자국산 태양광 장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우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운영중인 기업체들이 오랜 관세를 회피한 것을 확인한 후로 동남아시아로 부터 수출되는 일부 태양광 전지와 모델에 대해 내년 6월에 최고 2백54%의 관세 부과에 직면하게 된다.
- 미국은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 또는 중국과 연관된 기업 5개가 관세를 회피하는 업체로 지목했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Bloomberg: Nomura Cuts China's Growth Forecast to 4.6% on 'Downward Spiral'

Nomura, 중국 성장률 전망치 4.6%로 하향

- Nomura Holdings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하향 조정했다. 7월 중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하강세가 지속되었기 때문.
- 이전 전망치는 5.1%.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9%로 변동 없이 유지 되었다.
- 한편 Morgan Stanley는 2023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7%로, JPMorgan Chase는 4.8%로 낮췄다.

Bloomberg 기사

WSJ: Investors Fear China's 'Lehman Moment' Is Looming

투자자들, 중국판 '리만 사태' 우려

- 중국의 대형 자산사의 재정적인 스트레스 신호 때문에 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퍼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에 '리만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 Zhongrong국제 신탁사는 여러개의 자산 관리 회사를 소유중인 대규모 금융 대기업인 Zhongzhi Enterprise Group에 속한다. 이들의 상황 문제와 채무 불이행이 눈덩이 처럼 커질 경우, 중국의 수많은 기업과 부유층에 판매된 많은 투자 상품이 위험한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부 투자자들은 이들 투자 상품으로 부터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Walmart and Target face similar problems — but only one is thriving

비슷한 문제 봉착한 월마트와 타겟에 다른 결과

- 타겟과 월마트는 2분기 회계연도의 실정이 크게 엇갈렸고, 향후 수개월동안의 전망도 크게 달랐다.
- 월마트의 온라인 매출은 3개월 동안 늘어난 반면에 월마트는 떨어졌다.
- 이같은 대조적인 결과는 두 회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부 소매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보다 어떻게 더 성공을 거두었는지 보여준다.
- 한 예로 월마트는 연간 매출의 반 이상을 식료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 식료품은 매출이 많은 분야이다. 반면에 타겟은 식품이 20%만 차지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소비자가 덜 찾는 의류, 귀걸이, 베개같은 품목에 의지한다.
- 쇼핑객의 외출 증가로 온라인 지출이 감소세를 보였는데 타겟은 경우 디지털 매출이 줄어든 반면에 월마트는 전자상거래가 2분기에 24% 늘었다.

CNBC 기사

WSJ: America's Fight Over Tipping at Restaurants Comes to Its Biggest Battleground Yet

시카고 레스토랑 임금 둘러싼 분쟁 커진다

- 분쟁의 핵심은 레스토랑 근로자가 시카고 대기업을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가 여부다. 대기업 최저임금은 15.80불.
- 현재 이들의 임금은 높지 않다. 일리노이와 다른 주에서는 팁 임금 제도를 방패 삼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들은 레스토랑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9.48불을 지급하고 차액은 팁으로 메꾼다. 팁을 합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고용주가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 시카고 관계자는 팁 임금 제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레스토랑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하는 것은 레스토랑 소유주가 해야 할 일이며, 그들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 일부 레스토랑 소유주들은 제도가 변경되면 사업이 뒤흔들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메뉴 가격 인상과 높은 임금을 상쇄하기 위해 직원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WSJ 기사

CNN Business: Trader Joe's says it's not adding self-checkout lines to its stores

Trader Joe's “셀프 계산대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 Target과 Kroger와 같은 여러 체인점에 셀프 계산대가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Trader Joe's는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작년 1천 명의 쇼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7%가 셀프 계산대 오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오류는 매우 흔한 일이다.
- 셀프 계산대는 설치 비용이 비싸고 고장이 잦다. 또한 계산원이 있는 기존 계산대보다 더 많은 손실과 도난이 발생한다.
- Trader Joe's는 배송, 도로변 픽업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Trader Joe's은 대체로 작은 매장에 위치해 있어 매장 내부에 사람이 많거나 주차장에 차량이 많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NN Business 기사

WSJ: Why a Zara Store Bet Big on the Maxi Dress This Summer

Zara, 매장 관리자에 통제권 준다

- 자라는 매장 관리자에게 매장의 재고,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했다. 현지화 전략을 추진한 것.
- 이 전략은 독점적인 데이터 시스템과 중앙 집중식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작년부턴 모든 자라 매장에서 '미러 스토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덕분에 매장 관리자는 최신 판매 데이터를 확인해 매장 실적에 대한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소비자 행동을 비교하기 쉬워졌다.
- 예를 들어 런던 첼시에 위치한 자라 매장 매니저인 Ana Oliveira는 판매 데이터 분석 결과로 단색 드레스보다 프린팅 드레스가 더 잘 팔리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프린팅 드레스가 눈에 더 띄게 전시 위치를 입구 옆의 레일로 옮겼다.

WSJ 기사

Bloomberg: Detroit Carmakers Resist Pressure to Pay Up for Battery Workers

Detroit 자동차 업체들, 배터리 노동자 임금 인상 반대

-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은 배터리 노동자들이 다른 시설의 근로자와 동일한 급여와 혜택을 받기 원한다고 밝혔다.
-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1) 배터리 공장은 아직 건설 중이며 2) 이 시설은 자사의 완전 소유가 아닌, 아시아 배터리 제조업체와 합작 투자해 설립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UAW 회장 Shawn Fain은 위 입장을 이해하지만, 더 나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6%의 임금 인상, 기존 연금 복원, 생활비 인상, 근무 주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요구는 각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존 인건비보다 800억불 이상의 금액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Intel Shows Why Global Chip M&A Is Off the Table 반도체 시장 M&A 힘든 이유는?

- 미국과 중국 간의 칩 전쟁이 격화되면서 M&A 거래 전망이 심각하게 어두워졌다.
- 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하며, 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 미국이 중국 우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 칩 기업의 확장 시도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
- 인텔과 나머지 칩 업계는 성장 계획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중국만이 유일한 장애물은 아니다. 유럽의 규제 당국도 주요 기술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업계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중국 경제 위기, 애플·테슬라 등 미국 기업·투자에도 충격"

제조업·소비재·카지노 등 중국 관련 기업에 두루 여파

중국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중국과 관련된 미국 기업의 주가와 투자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CNN비즈니스는 17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의 곤경은 미국 주식 보유자에게도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데이터 분석회사 엑센티의 전략전문가인 엘릭스 이트러는 CNN비즈니스에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동력이었다"며 이는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 세계 경제의 성장도 늦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